

정주비자

를



받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용하고 있는 외국적 사원의 비자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인 남편과 이혼해 버렸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만. 모국에 있는 아이를 일본에 부르고 싶다. 후지미노국제교류 센터의 생활 상담에 이런 화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은 수많은 상담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케이스로 정주 비자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정주 비자란 어떤 비자입니까?

정주 비자란 정확하게는 재류 자격 「정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외국적시민 개개인의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본에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해 살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인도상의 이유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정주 비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일본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정주 비자는 취직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처럼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영주권과는 달라 비자의 갱신 수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일본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만, 정주 비자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외국적시민이 일본인의 남녀 어느 쪽인가 하고 결혼하여 일본에 살게 되면 일본에의 입국, 체재(재류)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입국할 때는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일본 체재 중 일본인과 결혼하면 재류 자격을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재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받으면 일본인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 3) 다만 불법 입국자나 불법 잔류자등인 분이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강제 퇴거수속을 면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종 법무부 장관의 판결때에 정상참작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일본인의 남편이 사망(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일본인과 결혼해 배우자 비자(정식으로는 재류 자격 「일본인 배우자등」)를 받고 있었지만 남편과 사별했을 때, 보통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므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결혼 생활이 길었다거나 남편의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정주자 비자에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일 경우에도 인지도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보통 정주자로서의 재류 자격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해 제일 4, 5 년이 지난 사람은 일본인 배우자등의 비자에서 정주자 비자로 재류 자격을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www.ficec.jp/foreign/

●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모국(해외)에 사는 아이를 불러와 지금의 남편과 생활하고 싶습니다만.

일본인과 결혼해 재류 자격 「일본인 배우자등」(배우자 비자)을 취득한 외국적시민이 모국(본국)에 전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아이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일본에 불러와 현재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정주 비자로 불러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일본으로 모셔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만.

모국에 사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을 돌 볼 사람이 없다. 남편도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해 일본으로 모셔 오고 싶다.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정주자라는 자격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미리 고시(「정주자 고지」)로 지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안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적시민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부모님이 모국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라는 인도적 배려라는 관점에서 스타트합니다. 이 케이스 외에는 정주 비자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성 21년도
4월 입소아동
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지미시에는 공영 탁아소가 6 군데, 민영이 6 군데 있습니다. 이 탁아소의 입소 신청이 11월 18일(후지미노 교류 센터), 19일(미즈타니 공민관), 11월 20일(후지미시 관공서 1층)에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후지미시 육아 지원과(049-252-7105), 각 출장소, 각 탁아소(원)에서 배포 중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서류 일식과 모자 수첩을 가지고 신청 아동과 함께 회장에 가지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실시된 「뒷좌석 시트 벨트의 착용 의무부여」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이 4개월의 고지 유예기간(노력 의무)을 경과해 10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시에 이것을 게을리하면 기초 점수 1점이 붙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동승자는 반드시 시트 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의 시트
벨트 확인을!
10월부터
노력의무가
의무화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6개국어 대응
유치원·보육원
입원가이드 북」
이 생겼습니다

더 알고 싶다! 일본의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 유아·아동이 있는 부모님이 알고 싶어할 내용을 가득 실은 책을 센터·스텝의 노력으로 완성했습니다. 입소·입원의 방법, 예방 접종, 병원 등, 평소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6개국어로 번역·소개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일부의 공공 시설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세요. 센터에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스텝에게 말씀해 주세요.

